

토마스 하디의 소설 『더버빌가의 테스』의
영화화와 자막연구
— 로만 폴란스키의 『테스』를 중심으로 —

김 명 균
(대구외대)

1. 서론

문학텍스트를 영상화했을 경우에 영화에서는 감독이 원작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그 시대의 사상적 맥락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기 때문에 상호 유사한 특성을 지니면서도 차이점을 보여준다. 문학작품과 영상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매체가 가지는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표현방식의 특징들을 미학적으로 형상화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문학과 영상 매체와의 결합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소설작품의 영상화일 것이다. 특히 문학작품과 영화로 영상화된 작품을 비교해보는 연구는 “소설과 영화 및 드라마라는 각기 다른 장르별 재현의 차이를 살피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초래한 여러 가지 기법을 점검해보는 데도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작

소설의 이야기 구성이나 서술기법상의 독창성을 반증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영란 2002: 191-92). 이러한 원작소설의 이야기 구성이나 서술기법상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 텍스트와 영화텍스트 사이의 가장 일반적이며 빈번한 상호교류를 우리는 ‘각색’(adaptation)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형식 외 2004: 11).

특히 원작소설을 영화화했을 경우에 평자들은 원작의 내러티브 재료를 그대로 옮겨놓았는지, 원작소설의 핵심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유지하면서 독창적인 재해석이나 해체적 전복을 시도하였는지, 혹은 원작소설의 충실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락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며 완전하게 새로운 작품으로 변형 각색했는지를 판단하여 각색영화의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각색영화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지프리 와그너(Geoffrey Wagner)는 『소설과 시네마』(*The Novel and the Cinema* 1975)에서 각색의 세 가지 범주를 첫 번째로 ‘원작소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각색인 전환’, 두 번째로 ‘원작을 따르지만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는 논평’ 그리고 세 번째로 ‘전혀 다른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원작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탈하는 유사’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루이스 자네티(Louis Gianetti)는 ‘원작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상황을 선택하여 원작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영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느슨한 각색’, ‘최대한 원작의 정신에 가깝게 문학작품을 영상적 시각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충실한 각색’ 그리고 ‘오리지널 연극 작품을 각색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있는 원작 그대로의 각색’으로 세 가지 각색을 제시하고 있다”(이형식 외 2004: 17-21 재인용). 이러한 원작의 각색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영상이 청자에게 얼마나 원작의 고유 의미를 충실하게 잘 전달하는 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영상의 시각적인 이미지와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만족하는 자막번역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 특히 원작의 원문 텍스트²⁾의 충실성과 원작의 의미와

1) 각색이란 희곡, 소설 등 활자로 이루어진 문학작품이 청자들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로 전환되어 영상화되는 것을 말한다. 토마스 라이치(Thomas Leitch)는 수동적인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각색이라고 평하면서 “각색은 원작을 모방하거나 재창조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Laurence 2008: 78 재인용)라고 주장한다.

2) 본 논문에서 쓰는 용어인 출발어(Source Language)는 SL로, 도착어(Target Language)

문화를 동시에 반영하여 번역문 독자에게 전달하는 가독성이 영상을 통해 청자에게 얼마만큼 충실성과 가독성을 담고 전달하는 지 번역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1840-1928)의 원작소설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1891)를 1979년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에 의하여 충실하게 각색하여 영화화된 <테스>의 자막을 토대로 원작의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이 축소번역, 생략, 삭제 및 언어의 경계 등 자막번역을 통해 어떻게 청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인류가 번역행위를 시작한 이래로 번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다. 이러한 번역행위에 대해 이석규는 『우리말답게 번역하기』에서 “번역은 어느 한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를 의미가 동일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다. 이에 두 가지 방향의 번역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과 그 반대의 경우 즉 ‘한국어로 표현된 텍스트를 한국어가 아닌 그 외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포함한다. 번역에 대한 이런 정의에는 1)번역이란 원작의 사상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2)문체와 글쓰기 방식이 원문의 것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3)번역이란 원문이 가진 평이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의 속성이 내재되어있다”(2004: 16)라고 설명한다. 또한 김효중은 “번역은 원문 텍스트를 이해, 분석하고 번역등가를 찾아서 원문 텍스트에 상응하는 번역문 텍스트를 생성하는 창조적 활동이다”(2004: 127)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국외 학자들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관련된 번역이론을 살펴보면 번역학자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은 “충실성에 대해 번역자가 원작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연관된 것이지 원작에 얼마나 충실한가

는 TL로, 원문 텍스트(Source Text)는 ST로, 목표 텍스트(Translated Text)은 TT로 쓰 고자 한다.

하는 종속적 개념에 의존하지는 않는다”(53)라고 설명하였다.

피터 뉴마크(Peter Newmark)가 제시하는 여덟 가지 번역방법³⁾ 가운데 하나인 ‘충실한 번역(faithful translation)’에 대해 살펴보면, 목표언어의 문법구조에 적절하도록 번역하면서 원문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재현하려는 번역방법이다.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휘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 ‘음차번역’하고, 원문 텍스트에 쓰인 원문 텍스트 내의 언어가 원문 텍스트 내의 문법이나 어휘의 쓰임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주며, 원저자의 의도와 원저자가 쓴 텍스트의 실현에 전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이은숙 2008: 86; 재인용). 호레이스(Horace)와 키케로(Cicero)는 “번역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모국어와 문학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충실함’을 더욱 엄격하게 의식하여 출발어에 가깝도록 하기보다는 도착어로 쓰인 번역의 미학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중요시하였다”(Bassnett 1980: 43-4 재인용). 이러한 원문 텍스트의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의 논쟁에 대해 슈틀제(Stolze)는 “초기의 번역자들은 더욱이 그들의 방법론을 세웠지만, 하나의 특수한 언어사용으로서 번역행위를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학문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번역활동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은 근본적으로 항상 설득력 있게 이론적으로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충실한’ 번역과 ‘자유로운’ 번역⁴⁾ 사이의 근본적인 논쟁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대체적인 규칙으로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고 학교의 외국어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오늘날까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가능한 축역을 하고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번역하라.’”(박용삼 2003: 105-06 재인용)라고 주장하였다.

텍스트 상에서 이렇듯 학자들에 따라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번역 업무에 종사하는 번역

3) 피터 뉴마크가 제시하는 8가지 번역의 방법은 출발어를 강조하는 단어 대 단어 번역, 직역, 충실한 번역,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번역이 있으며, 도착어를 강조하는 번안, 자유스러운 번역, 관용어 번역 그리고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번역이 있다(이은숙 2008: 89 재인용).

4) “고대 번역이론의 대표자인 키케로는 가장 오래된 번역의 이분법인 ‘자유스러운 번역 / 충실한 번역’의 방법을 도입했다”(김효중 2004: 178-79). 그러나 “키케로와 호레이스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선호하는 번역의 접근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충실한’ 번역과 ‘자유스러운’ 번역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Baker 1998: 87).

가는 충실성과 가독성 중 어떠한 방법에 중점을 두고 번역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번역의 기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적용해야 한다. 즉 번역에 있어서 ‘충실성(정확성)’과 ‘가독성’에 관한 비평가들의 평가기준은 명확한 경계가 없이 주관적인 판단과 양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평가는 이 두 가지 기준의 객관성 여부 및 양극화의 폐해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전현주 2008: 155). 이와 같이 번역의 적용 방법은 어느 한쪽에 더욱더 많은 중심을 두고 번역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번역은 가독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원문을 얼버무려서 새로운 창작번역물을 읽게 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원문의 충실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번역을 하는 원래의 목적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번역은 외국어로 된 원문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이은숙 2008: 88)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상의 ‘충실성(정확성)’과 ‘가독성’의 번역이론을 바탕으로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세 가지 번역⁵⁾ 중 기호간(intersemiotic)번역인 영상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한다. 야콥슨이 말하는 기호간 번역인 영상번역은 소설을 토대로 각색되거나 혹은 글로 쓰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체를 달리하여 해석된 야콥슨의 세 번째 종류의 번역에 해당된다. 기호간 번역은 언어 기호를 음악, 무용, 영화 혹은 그림 등의 기호로 처리해 다른 예술장르로 자막 처리되면 언어간 번역 개념이 되고 수용자(관객 또는 청자)의 편의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더빙으로 처리된다면 언어내 번역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영상번역은 야콥슨의 세 가지 번역의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원작과 영상번역에서의 자막의 상호 텍스트성(류현주 2008: 79)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지금까지 논문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틀인 이론적 배경에서는 원문 텍스

5) 로만 야콥슨에게 언어의 의미란 곧 기호학적 사실이며 어떤 언어적 기호의 의미는 결국 또 다른 대안 기호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다. 그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번역을 정의하면서 사실 “해석”(interpretation)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기호 해석은 1)언어내(interlinguistic) 번역: 동일 언어 내에서 언어 기호(verbal sign)를 다른 기호로 해석(rewording), 2)언어간(interlinguistic) 번역: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해석(translation proper), 3)기호간(intersemiotic) 번역: 비언어적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언어 기호를 해석(transmutation)으로 세 가지 종류의 번역으로 나뉜다(류현주 2008 78: 재인용).

트의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 상의 가독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축소번역, 생략, 삭제 및 언어의 경제는 다음 장 사례분석에서 자막을 통해 살펴보겠다.

3. 사례분석

1979년 로만 폴란스키에 의하여 영화화된 <테스>는 토마스 하디의 원작소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디의 작품 『더 버빌가의 테스』는 “빅토리아 시대 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영국 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육체에 대한 당시 사회의 “계급과 젠더” 및 이데올로기 문제와 연관되면서 새로운 방법론의 연구⁶⁾로 활성화되고 있다(장정희 2007: 248). 영화 <테스>는 작품의 플롯, 농촌생활의 배경, 주요인물 등을 원작소설과 유사하게 다루어 사실성을 최대한 살리고 원작의 구조를 충실하게 각색하여 이끌어간다. 원작을 이끌어 갔던 대부분의 사건이 영화 속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등장인물들 대화 역시 원작소설 속의 언어를 최대한 원작에 맞게 살리고 있다. 논문에서 다루는 사례분석은 작품의 흐름을 따라 원작의 언어를 충실하게 영상화한 폴란스키 영화 『테스 1979』의 자막을 기준으로 삼았다.

[ST 1] Parson: Nothing Whatever, save possibly chasten yourself by thinking: ‘How are the mighty fallen.’
Good night, Sir John.

[TT 1] 목사: 전혀 없어요. 왜 몰락하게 됐는지 생각하면서

6) 특히 “여성론 비평에서 여성의 육체와 여성의 성(female sexuality)에 대한 당대의 담론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 매리 푸비(Mary Poovey)는 당대의 여성 육체에 대한 견해를 대변하는 그레그(W.R.Greg)의 「매춘」과 샬로트 브론테(Charlotte Bronte)의 「제인에어」를 비교하여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성적 욕망이 재현되고 이해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배숙(Allen Bassuk)은 빅토리아조 여성들이 겪었던 각종 신경증들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육체에 대한 편견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볼 수 있다고 주장 한다”(장정희 2007: 248).

자신을 단련하는 길 외에는 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존경.

(영화 『테스(Tess) 1979』)⁷⁾

폴란스키는 트링엄 목사가 존 더비필드와 대화 중에 더버빌 가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버빌 가문에게 남은 재산을 물어보는 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장면으로 원작과 동일한 대사를 사용하여 영상으로 각색 처리하였다. 그러나 영화 자막에서는 사울 왕과 요나탄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애도하며 탄식하는 부분인 ‘사무엘기 하권 1장 19절’을 인용한 ST의 ‘How are the mighty fallen’을 TT에서 ‘아 용사는 쓰러졌도다 또는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라고 번역하였으면 좋았을 테데 ‘왜 몰락하게 됐는지’로 번역하여 원작의 충실성이 저하되게 번역하였다. 또한 자막은 청자를 위한 가독성을 살려 ‘save possibly chasten yourself’를 ‘왜 몰락하게 됐는지 생각하면서 자신을 단련하는 길 외에는’이라고 번역 처리하였으나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요’라고 처리하는 방법이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충족해야 하는 자막의 기능에 있어서 청자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전략이 될 것이다.

- [ST 2] John: I would sell him the title.
Yes, I'll sell it. At a fair price.
Joan: Not less than a thousand pounds.
John: That's right tell him that
I'll take the thousand pounds.
Well now I come to think of it,
He can have it for a hundred.
I won't stand on trifles.
Fifty. Twenty pounds, tell him and not a penny less.
- [TT 2] 아버지: 작위를 팔겠다고 전해라
그래 적당한 금액에 팔겠다고 해
어머니: 천 파운드 이하로는 안돼요
아버지: 천 파운드면 팔 거야, 다시 생각해보니.

7) 본 논문의 사례분석에서 사용한 자막 번역은 폴란스키 영화 『테스(Tess) 1979』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백 파운드면 되겠구나. 쪼쪼해선 안돼
50, 아니 20파운드도 좋아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위 ST의 'That's right tell him that...'부분을 TT로 번역하면서 영화자막의 특성을 살려서 삭제⁸⁾를 하였으며 ST의 'I won't stand on trifles'의 어휘적인 의미인 '나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TT의 문화권에 적당한 어휘로 대체하면서 가독성을 살려 '쪼쪼해선 안돼'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TT의 '백 파운드면 되겠구나'의 행위의 주체는 'He(알렉)'이지만 '쪼쪼해선 안돼'의 행위의 주체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착어 한국어에서 주어의 생략으로 인하여 행위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위 예문은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한 부분으로 아버지 더비필드가 딸 테스와 부인 조안에게 하는 발화로써 테스를 알렉 더비빌 집안으로 보내서 알렉에게 더비빌 가문의 작위를 팔려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John의 간절한 바람을 혼자서 독백 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난 까다롭게 굴진 않아' 또는 '난 푼돈 가지고 까다롭게 굴진 않을 꺼야'라고 번역 처리하는 것이 원작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하면서 목표 텍스트의 청자들을 위한 가독성을 높여주는 좋은 번역이 될 것이다. 또한 위 예문에서 도착어의 주어들은 원작과는 다르게 생략되었다. 이와 같이 주어와 호칭의 생략은 도착어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특히, 영상번역의 특성상 주어의 생략에 대해 황선길은 "영상매체는 영상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표현하고 있는 인물, 즉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말은 서양말에 비해 1인칭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1999: 32)라고 언급하였다.

[ST 3] Alec: You mind my driving?
Tess: No, sir. I shall walk.
Alec: But it's four miles to Trantridge, at least.
Tess: Well I wouldn't care if it were twenty.

- 8) "삭제는 원문 텍스트의 필수 요소나 문장 전체를 목표 텍스트에 나타내지 않은 현상을 말하는데, 생략이 임의적이고 문장 일부를 제거한다고 가정한다면 삭제는 이와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즉, 생략이 반복적 잉여표현이나 언어 구조, 통사적, 문체론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면, 삭제는 청자와 화자 간 공통 공유 정보를 근거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지 부담을 줄인다"(박윤철 2008: 178).

[TT 3] 알렉: 내 운전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나?
 테스: 네 전 그냥 건졌어요.
 알렉: 트랜트리지 까진 4마일이나 더 가야 해
 테스: 20마일이라도 괜찮아요.

위 예문에서는 알렉이 테스와 마차를 타고 가면서 테스에게 천천히 마차를 물고 갈 테니 키스를 해달라고 하자, 테스가 알렉의 거친 운전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모자를 떨어뜨려서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겠다는 장면으로 트랜트리지 까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를 함축해서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거리감에 대한 개념으로 ST의 ‘four miles 와 twenty’를 이국화⁹⁾의 개념을 적용하여 ‘4마일과 20마일’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나, TT의 청자에게는 거리감을 느낄 수 없으므로 가독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자국화 개념으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여서 TT 독자를 위한 목표문화권의 도량형 단위인 킬로미터로 환산하여 ‘6 킬로미터와 32 킬로미터’로 환산하여 표기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ST 4] Alec: Tell me Tess. Didn't you find my mother a little... odd?
 Tess: Why. I hardly know her sir.
 Alec: Well, I'm not in her good books at the moment.
 But you should find her favour if you treat her livestock well.

[TT 4] 알렉: 테스, 우리 어머니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
 테스: 전 부인을 잘 모르는데요.

9) 베누티(Venuti)는 슬라이마허(Schleiermacher)로부터 ‘자국화 번역(친숙하게 하기, domesticating translation)’과 ‘이국화 번역(낯설게 하기, foreignizing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자국화 번역은 번역문 텍스트의 독자들이 원문 텍스트의 생소함을 가능하면 느끼지 않도록 채택하는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양식의 번역 방법이며, 이국화 번역은 원문 텍스트에 존재하는 이국풍의 요소를 번역문 텍스트에 그대로 옮겨 의도적으로 번역문 텍스트 언어권의 관습에 적합지 않은 번역문 텍스트를 생산하는 번역의 방법이다(이근희 2005: 77-9). 특히 베누티는 이국화 전략이란 “이국 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받아들여지게끔 번역문 텍스트 언어의 문화적 가치에 압력을 가해 자민족 일탈을 유도함으로써 독자를 이국으로 보내는 것”(정연일·나원준 2006: 209)이라고 말한다.

알렉: 난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지
하지만 가족을 잘 돌봐주면 어머니께서 널 좋아할 거야.

위 장면은 알렉이 자신과 맹인인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테스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위 예문의 자막에서는 ST의 ‘I’m not in her good books’를 TT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지’라고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ST의 관용적인 표현¹⁰⁾인 ‘not in her good books’의 어휘적인 의미를 살려 충실성과 가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난 지금 어머니 눈 밖에 난 사람이지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가독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때로는 원작의 소설을 충실하게 각색하여 영화화 한 작품은 부분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직역함으로써 오히려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청자들에게 원작의 의미를 높여주는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ST 5] Alec: What's all the row about?

Quickly, jump up beside me.

Man: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TT 5] 알렉: 무슨 일인가? 어서 타

남자: 혹은 떼려다 혹은 붙였군!

위 TT에서는 ST의 ‘Quickly, jump up beside me’를 장면의 시간 및 공간 제약으로 인해 간략하게 축소된 번역¹¹⁾을 활용하여 ‘어서타’로 번역하는 전략

10) 몸짓과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온 탓에 그 뜻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표현들이 적잖다. 언어학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흔히 ‘관용어’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용어는 나라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몸짓이 다르듯이 언어에서 사용하는 관용어도 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쇠귀에 경(經)읽기’ 일본에서는 ‘말귀에 염불’이라고 사용한다(김옥동 2007: 227).

11) “축소번역: 출발어와 원문내용이나 의미 또는 문체를 변경, 생략, 삭제, 압축과 같은 형태로 도착어 텍스트에 문장길이를 줄이거나 핵심의미 표현으로 전달하는 번역을 말한다”(박윤철 2007: 125). 특히, 영상의 특징인 “영화자막의 양적 축소는 자막번역의 특성 내지는 제약으로서, 당연히 전개되거나,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자막의 양적 축소는 감흥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언어사용의 한 측면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장민호 2008: 49).

을 취하였다. 또한 속담이나 격언 등 ST의 관용적인 표현을 번역할 때엔 번역자는 목표문화권의 언어권에 존재하는 유사한 의미의 속담이나 격언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목표문화권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 텍스트 의미의 충실성을 살리고 목표문화권의 청자를 위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등가를 적용시켜야한다. 즉, 위 예문에서는 ST의 관용적인 표현인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를 ‘혹을 떼려다 혹을 붙였군’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원작의 특성을 살려 ST의 충실성과 TT의 가독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재난을 피하여 큰 재난에 빠지다라는 표현의 의미인 ‘프라이팬에서 불로 떨어드는 격이군, 옆친데 덮치다 혹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다’라고 번역을 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면 청자가 더 쉽게 이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ST 6] Alec: You are absurdly melancholy, Tess. You can hold your own for beauty against anyone. Queen or common.

I tell you that as a practical man who wishes you well.

If you are wise, you'll let the world get a clearer site of that beauty. Before it fades. Why not make the most of life? We didn't fare so badly together, did we?

Tess: I was blinded for a while, that's all.

Alec: That's what all women say.

[TT 6] 알렉: 지나치게 우울한거 아냐, 테스?

넌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왕족이든 평민이든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뜻에서 하는 소리야

현명하다면,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빛나게 보이도록 해, 왜 아름다움을 감추는 거지?

우린 잘 지냈었잖아

테스: 잠시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알렉: 모든 여자들이 의례하는 소리지.

TT는 알렉이 원작의 비극성을 야기 시키는 체이스 숲에서의 테스와의 관계 이후 떠나는 테스에게 하는 대사 중에 ‘넌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왕족이든 평민이든’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앞뒤 문장의 연결성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당신의 미모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아. 여왕이든 평민이든 누구에게도 말이야.’

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빛나게 보이도록 해, 왜 아름다움을 감추는 거지?’라고 번역한 문장도 관용적인 표현인 ‘make the most of, ~을 최대한 활용하다’의 어휘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도록 해. 왜 삶을 누리지 않는 거니’라고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면 청자에게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의 효과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ST 7] Alec: I'm a bad lot. I suppose - a damn bad lot.

I was born bad, and I warrant I'll die bad.

[TT 7] 알렉: 난 나쁜 놈인가 봐

정말로 나쁜 놈이야

태어날 때도 그랬고

틀림없이 죽을 때도 그럴 거야

위 예문은 원작에서 알렉이 체이스 숲에서 반 강제적으로 테스를 범하고 난 뒤 테스가 다음날 새벽에 떠나자, 테스의 뒤를 쫓아간 알렉이 테스를 만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다. 하디의 원작대사와 동일하게 취급한 이 장면에서 원작의 충실성과 독자를 위한 가독성을 대체로 우수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ST의 ‘I suppose’, ‘I warrant’와 같은 화자 생각을 강조하는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 표지들이 생략되는 구조적 생략¹²⁾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생략은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을 제고해서 ‘태어날 때도 그랬고, 틀림없이 죽을 때도 그럴 거야’라고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원문 텍스트의 충실성을 충족시키는 번역의 전략을 취하면서 ‘난 태어날 때도 나쁜 놈이었으니, 난 나쁜 놈으로 죽을 거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번역전략이다.

[ST 8] Vicar: I've to baptise it before lord gathers it to his bosom.

12) “영화 자막의 목표 텍스트에 흔히 발견되는 것은 ‘you know’, ‘you see’, ‘oh’, ‘now’, ‘I mean’과 같은 담화 표지들이 생략된다는 것이다. 사실, 담화 표지들은 특정 의미를 가진 발화로서 기능하기보다 이전 발화와 이후 발화에 부가 설명하는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담화 표지들은 발화 맥락에 정보성이 낮은 의미로 구조적 생략에 해당된다”(박윤철 2008: 180).

John: What child are you speaking of?
 All my children are baptised. You all know.
 Vicar: Durbeyfield. Don't play games with your mighty.
 John: I don't play sir. I work! I work! Like a beast of a field.
 You can tell the almighty that for me!

[TT 8] :목사: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아이에게 세례를 해줘야죠.
 아버지: 아이라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목사: 더비필드, 신과 장난해서는 안 되요.
 아버지: 장난이요? 전 장난은커녕 들판의 짐승처럼 일만한다고
 요!
 신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요!

위 예문은 ‘You all know’ 발화와 반복문장인 ‘I work! 발화가 목표 텍스트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발화가 삭제되는 것은 문장 전체에서 청자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문장일 수 있어서 삭제를 하였다. 그리고 더비필드는 자신이 낳은 6명의 아이들은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고귀한 더버빌 가문의 수치인 테스가 낳은 아이를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내 아이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목사에게 말한다. 그러나 목사는 테스가 낳은 아이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더비필드에게 신을 놀리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원작의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 독자를 위한 가독성을 살려 번역가는 ST의 ‘play games with’를 단순한 어휘적인 의미보다는 ‘신과 장난하다’로 번역하여 처리하였으나 오히려 어휘적인 의미를 살려 ‘신을 놀리다 또는 속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청자에게 좀 더 가독성의 효과를 줄 수 있다. 그 이외 다른 부분들은 원문 텍스트의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의 청자를 위한 가독성까지 충족시키는 번역의 전략을 취하였다.

[ST 9] Crick: Ah well, if you can swallow that, so be it.
Tis what I hain't touched for years. .
It lies in my innards like lead. . . .
 To my thinking, the beasts aren't giving all they should.

[TT 9] 크릭: 그럼 좋을 대로 해
 난 수년 동안 입에 대지도 않았지

우유를 마시면 속이 안 좋거든
우유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원작에서는 테스는 아이 ‘쏘로우’를 잃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탈보테이즈 낙농장에 도착하는 장면이다. 이 부분도 원작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폴란스키는 원작의 내용과 동일한 대사를 사용하여 각색하였다. 그러나 영화 자막에서는 낙농장의 주인인 크릭이 테스에게 하는 대사로 ST의 ‘if you can swallow that, so be it. ‘Tis what I hain't touched for years. . . . It lies in my innards like lead’ 대사를 TT에서는 ‘그럼 좋을 대로 해 난 수년 동안 입에 대지도 않았지, 우유를 마시면 속이 안 좋거든’으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나 자막의 특성인 시간과 공간제약의 충족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 원문 텍스트의 충실성과 청자의 가독성을 살려서 ‘그것을 마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몇 년 동안 손도 대보지 않았지. 그걸 마시면 내 뱃속에서 납덩이가 되는 것 같아’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크릭씨가 우유 통을 향하면서 테스에게 가져오는 상황에서 영상의 특성인 시각적인 이미지가 주는 효과를 살려주는 발화상황을 근거로 하여 ST의 ‘if you can swallow that’를 삭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또한 ST의 ‘the beasts aren't giving all they should’를 명시적인 의미를 살려 ‘우유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로 청자의 가독성을 살려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ST 10] Jonathan: That's because there's a new hand come among us.

Deborah: I've known it's happened before.

Jonathan: They do say that the milk, goes up into their horns at such times.

Angel: Anyone would think we were back in the Middle Ages.

[TT 10] 조나단: 낯선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데보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나단: 우유가 뿔로 간다고 하잖아요

에인젤: 누가 들으면 우릴, 중세시대 사람으로 알겠군요

위 예문은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하여 처리한 부분이며 테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탈보테이즈 낙농장에 도착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때 일하는 사람과 주인 부부와 일꾼이 하는 대사이다. 대사 중 ST의 ‘there’s a new hand come among us’ 발화를 TT의 ‘낯선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라고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나 원문 텍스트의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 청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 new hand’를 일반적인 어휘의 의미인 ‘낯선 사람’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일하러 온 테스를 ‘새로운 일꾼이 왔기 ...’라고 번역하여 처리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더욱더 맞는 번역방법이다. 또한 위 예문에서 자막의 특징인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I’ve known’과 ‘They do say that’을 생략하였다. 이러한 생략은 영상번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언어의 경제¹³⁾효과로써 같은 감흥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발화의 의미전달을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언어생활의 한 측면이다”(장민호 2004: 105).

[ST 11] Tess: And stare at it with all your might.

And by and by you feel you are falling into the sky.

Miles and miles from your body which
you can't seem to need at all.

[TT 11] 테스: 그렇게 쳐다보면,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육체와 점점 멀어져 육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돼요

위 예문에서 연결어인 ‘and’ 발화요소가 생략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어가 생략된 부분은 테스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동료들에게 영혼과 육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그리고 TT는 ST의 ‘with all your might, 전력을 다하여’라는 부분을

13) 영상자막에서는 출발어와 도착어의 길이로 인하여 언어의 경제와 불경제는 끊임없이 야기되는 번역상의 문제이다. “출발어의 메시지가 도착어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전제하고 있다면 번역사의 경제 하려는 의지(her will to economize)에도 불구하고 도착어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길어진 번역이 언어의 불경제(linguistic dyseconom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의 경제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도착어의 대안 표현 중에 번역사는 가장 짧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언어의 경제인 것이다”(장민호 2004: 115).

생략하여 ‘그렇게 쳐다보면’으로 처리하였으나 충실성과 가독성을 살려 ‘정신을 집중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TT는 ST의 ‘by and by’, 와 ‘Miles and miles’를 생략 또는 점점이라고 함축적으로 번역이 되어있지만 테스가 말하는 이 부가어들은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하는 거리감을 설명한 부분이어서 ‘곧, 잠시 후’와 수천마일 또는 까마득히 멀리’라는 부분으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원작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유용한 번역이 될 것이다.

[ST 12] Angel: I have other plans.
 Mr. Clare: Other plans?
 Angel: Very much sir.
 Mercy Chant appeals more to you than she does to me.
 I'm not disputing her merits.
 I'm only speaking of my own inclinations.
 Mrs. Clare: My dearest boy.
 Mr. Clare: Angel, just remember you're addressing your parents!

[TT 12] 에인젤: 전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다른 계획?
 에인젤: 네, 아버지
 머시 첸트는 저보다, 두 분이 더 좋아 하시죠
 그녀가 훌륭하다는 건 알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애야!
 아버지: 에인젤,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잊지 말거라!

위 예문은 에인젤의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고귀한 가문의 자녀인 머시 첸트를 아들 에인젤의 배후자감으로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알고 있는 에인젤이 부모에게 반항적으로 발화하는 장면이다. TT의 에인젤이 발화하는 ‘머시 첸트는 저보다, 두 분이 더 좋아하시죠’라고 번역하였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테스를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기에 원작의 의미를 살려 ‘머시 첸트는 저보다도 부모님들의 마음에 드는 처녀입니다’라고 번역하여 처리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 비슷하게 당하는 ST의 ‘just remember you’re

addressing your parents’를 오히려 꾸지람을 살려서 ‘에인젤, 그걸 부모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느냐!’로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ST 13] Angel: Tessy, darling!
Happiness seems to put an edge on my appetite.
I'm starving.

[TT 13] 에인젤: 오, 내 사랑
행복이 내 식욕을 돋우는 군

위 예문에서 Tessy라는 애칭은 작품전체에서 발화자인 에인젤이 테스에게서 마침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받아 에민스터 사제관에 계신 부모님에게 테스의 존재를 말하고 난 뒤에 테스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애칭인데도 자막번역의 성격상 생략하였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각색하여 영상화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칭의 개념이 아닌 작품 전반의 플롯을 구성하는 부분의 애칭이나 감탄어구는 생략하는 것 보다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청자들에게 원작의 의미를 살려주는 효과를 준다. 또한 위 예문에서 ST의 ‘put an edge on’의 어휘적인 의미는 ‘(칼 따위를)갈다, 연마하다’이나 목표 텍스트 청자의 가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복이 내 식욕을 돋우는 군’으로 번역 처리하여 문장흐름을 잘 연결하였으나, 이 원문 텍스트 문장의 대안번역으로 ‘행복하니까 식욕이 생기 내 또는 식욕이 절로 나는 것 같군요’라고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면 가독성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원문 텍스트의 충실성까지 충족시키는 번역이 될 수 있다.

4. 결론

하디의 원작 『더버빌가의 테스』를 충실하게 각색하여 영상화한 감독 폴란스키는 테스를 너무나 사랑하여 원작소설의 대사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원작이 주는 테스의 강한 여성성의 이미지

와 당대의 이데올로기 및 테스를 둘러싸고 있는 절대적인 의지에 비롯된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한 영화 <테스>의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한 원작의 의미가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청자를 위해 얼마나 잘 가독성을 살렸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물론, 소설 원작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는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의 의미가 영상으로 옮겨질 때 자막을 통하여 청자에게 전하는 충실성과 가독성의 효과에 대한 측정은 아주 다를 것이다. 폴란스키 감독은 원작자 하디가 의도하는 바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 원작에서 사용한 대사를 영화 속에서 충실하게 각색하여 영상으로 옮겼다.

영화 <테스>는 180분의 긴 상영시간동안에 펼쳐지는 영화 속의 테스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알렉 더버빌과 에인젤 클레어의 멜로드라마적 대사와 장면애 초점이 맞추어진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영화 <테스>의 자막번역은 시간 및 공간적 제약에 충족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충실성을 위해 직역과 의역을 혼합한 번역이었으나, 사례분석에서 충실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 번역을 제시한 것과 같이 문학작품의 성격을 살려서 번역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자막번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번역의 전략인 축소번역, 생략, 삭제 및 언어의 경계들이 영화 전반에 발생하지만 하디의 원작 『더버빌가의 테스』의 의미를 손상시키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었으며 오히려 영상을 통하여 원작을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영상번역가가 자막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학작품의 특성을 살려 청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의역을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자막 언어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번역 또한 두드러졌다.

영화번역은 일반번역과는 달리 발화, 텍스트, 영상, 음향 등 다양한 기호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형식의 자막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영화번역을 제외한 일반번역이 한 언어의 텍스트에서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수평 이동하는 언어간 번역이라면 영화번역은 기호간 번역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영화번역은 영상과 함께 자막이 존재해야 하는 시간의 제약, 자막이 스크린의 일정부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공간적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번역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예를 들면, 한글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극장용 영화는 화면 당 2줄을 기준으로 한 줄당 8자까지를 유지하며, 자막은 화면과 같은 시간 동안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번역지침이 번역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영화번역에 따르는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은 영화 번역가에게는 축소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점 때문에 자료 코퍼스의 영화번역에서도 축소번역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듯 영화번역에 있어서 축소번역이나 간결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언어의 경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원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가 번역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소되거나, 첨가되거나 하여 왜곡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그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원문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언어체계가 다르고, 엄밀한 의미의 일대일 대응은 곤란하기 때문이다(장민호 2007: 4-5 재인용). 자막번역은 원작소설의 번역과는 다르게 원작을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최대한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각색을 선택해서 청자의 입장에 맞게 영상화한 것을 자막번역의 개념에 맞게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상번역가는 원작이 주는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 독자가 받는 가독성의 효과를 청자에게 자막으로 전달했을 때 마치 자막이 없이 본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번역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 고영란. 2002. 『위더링하이츠의 영화화와 멜로드라마』. 『문학과영상』 2.191-215. 문학과 영상학회.
- 김옥동. 2007. 『번역인가 반역인가』. 파주: 문학수첩.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사.
- 류현주. 2008. 『로만 야콥슨의 번역이론과 영상번역: 우리말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 77-91. 한국번역학회.
- 박용삼. 2003. 『번역학 역사와 이론』. 서울: 숭실대학교.
- 박윤철. 2007. 『영화자막에서 시각기호에 의한 축소번역: 영상번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125-49.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8. 『자막번역의 생략과 삭제』. 『번역학연구』, 9:4. 169-92. 한국번역학회.
- 이근희. 2005.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석규 외 5인 공저.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
- 이은숙.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문제: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0:2. 83-103. 한국통역번역학회.
- 이형식 · 정연제 · 김명희. 2004. 『문학텍스트에서 영화텍스트로』. 서울: 동인.
- 장민호. 2004. 『번역과 언어의 경제: 영화번역을 중심으로』. 『국제회의통역과 번역』, 6:2. 97-125. 한국통역번역학회.
- _____. 2007. 『영화번역에서의 텍스트 축소와 메시지 변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3-30. 한국통역번역학회.
- _____. 2008. 『번역과 자막』. 서울: 한국문화사.
- 장정희. 2007. 『토마스 하디와 여성론 비평』. 서울: L.I.E.
- 전현주. 2008. 『번역 비평의 패러다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정연일 ·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Jeremy Munda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Theories &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 황선길. 1999. 『문법과괴 영상번역』. 서울: 범우사.
- Baker, Mona. 1998.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1980. *Translation Studies*, Methuen. London: Routledge.
- Laurence, Raw. 2008. "Adaptation Studies: Its Past, Present, and Future." *Literature/Film Quarterly*, 36:1. 78-9.

분석 대상 영화 자료

원작. 1979. <Tess>. 번역: 『테스』. American Film.

[Abstract]

**A Study on Film Subtitling adapted from Thomas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With focus on Roman Polanski's
Tess of the D'urbervilles.**

Kim, Myungkyun
(Daeg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faithfulness and readability in film subtitling adapted from Thomas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are fulfilled. This paper is to clarify how Thomas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is dramatized in for Roman Polanski's film work in the course of translating the adapted novel into fil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film work has evolved and grown over the years.

Roman Jakobson defined the three categories of translation: intralingual, interlingual, and intersemiotic translation. Intersemiotic translation is an interpretation of verbal signs by means of non-verbal sign system. And film translation provides many interesting topics in that it must meet four important criteria: ellipsis, deletion, reduced translation and economy of language of both a source and a target text.

Roman Polanski's *Tess* is faithful to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text but Polanski's *Tess* transforms the image of Tess. Tess in his film is depicted as an object of visual beauty rather than as an independent woman in the novel. On the basis of previous articles, this paper observed subtitle materials of Film, *Tess*(1979) which translated English into Kore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btitles of the movie showed ellipsis, deletion, reduced translation, and economy of language etc in target text.

▶ Key Words: Thomas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Roman Polanski's film, Roman Jakobson, Intersemiotic translation, film translation. subtitle.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 <테스>, 로만 야콥슨, 기호간 번역, 영상번역, 자막.

김명균

대구외국어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통번역전공 조교수

kmyk811@paran.com

관심 분야: 통번역이론, 영미문학, 영미희곡, 영미아동문학, 영화각색

논문투고일: 2009년 07월 13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